

2025 제 11회

나도 사진 작가展

세상과 소통하는 80개의 특별한 시선



2025.12.10 (수) ~ 12.14 (일)

노원구청 2층



나영근

열린문화이음 대표 / 한국사진뉴스 대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제 11회 '나도사진작가展' 인사말 렌즈 너머로 발견한 세상, 11년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2015년, 작은 시작으로 첫걸음을 뗀 '나도사진작가展'이 어느덧 1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시선을 찾아온 우리 작가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장 한 장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성장해왔습니다. 처음 서툴게 카메라를 들던 손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담아냅니다.

올해는 서울정민학교가 새롭게 함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졸업사진, 증명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꿈이자 권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따뜻한 연결이, 사진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존엄과 일상을 지키는 복지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올해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더 많은 단체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규모가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순수한 열정과 서로를 향한 응원만으로도 이 전시회는 빛날 것입니다.

"We start" 우리는 계속 시작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듯, 우리의 여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작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렌즈를 통해 발견한 그들의 세상을 함께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작가님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12.10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제11회 나도 사진 작가 展>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비영리단체 열린문화이음의 나영균 대표와 노원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진전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 및 서울정민학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나도 사진 작가 展>은 매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노원구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는 언제나 특별한 테마를 갖고 창의적인 작품들로 우리들의 시선을 끄듯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정민학교 재학생의 프로필 사진들은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온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사진으로 지역사회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해주고 있는 작가님들의 열정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가 참으로 존경습니다.

사진에는 말과 글로 다하지 못하는 진심이 담깁니다.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작가의 아름다운 마음과 따듯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웃들과 교감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연말의 따듯한 정이 가득한 오늘, 사진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5.12.1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국회의원 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입니다.**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11월에 발달장애인 및 중도중복장애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작품展인 제11회 『나도 사진작가 展』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열린문화이음 나영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계시는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 영웅시대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진展은 생활공동체인 동천하우스와 서울정민학교 재학생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출품하여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나도 사진작가 展』이 모두가 행복한 행복공동체의 길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도 사진작가 展』 통해 지역 주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하고, 뚜벅기 사진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더욱 훌륭한 사진작가로 성장하시기를 희망하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오승록
노원구청장

제11회 「나도 사진작가展」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도 사진작가展」은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사진 작품을 전시해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진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천하우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들이 직접 촬영 테마를 정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천하우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들이 직접 촬영 테마를 정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지역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나도 사진작가展」의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맞춤형 정책,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며, 장애인의 일상이 행복한 'THE편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깊고 아름다운 전시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따스한 미소가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며, 「나도 사진작가展」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응원드립니다.

2025.12.10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의장 손영준입니다.



노원구의회
NOWON DISTRICT COUNCIL

뜻깊은 연말을 맞이하여,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진솔한 이야기가 녹아 있는 「제11회 나도 사진작가 展」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저마다 품고 있던 예술적 씨앗이 세상 밖으로 싹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나영균 열린문화아름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사진을 출품해 주신 우리 작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시선과 삶을 담아낸 여러분의 작품은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기록이자 감동입니다. 이 전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전시된 80여 점의 작품에는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진솔한 시선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포착된 일상의 순간들이 관람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노원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어우려져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포용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시가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김영문

동천하우스 원장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동아리와 동행하며 헌신해 주신 나영균 선생님의 노고에 저희 동아리 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 사진첩에 담긴 모든 빛과 그림자 속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나도 사진작가전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온 귀한 기록입니다. 뚜벅뚜벅 느린 걸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작가들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뚜벅뚜벅 세상과 마주한 11년의 기록 "느림의 미학으로 발견한 세상의 빛과 그림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동천하우스 가족들에게 피어난 작은 꿈, '뚜벅기 사진 동아리'가 어느덧 세상과 뚜벅뚜벅 마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나도 사진 작가!"라는 설렘 가득한 이름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자신의 삶을 렌즈에 담아내는 가장 아름답고 용기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첩은 15~20명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시선으로 포착한 세상을 오롯이 담아낸 귀한 결실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세상을 담는 소박한 모임이었으나, 11년의 시간 속에서 작가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작품을 스스로 선정하며, 매년 노원구청의 지원 <나도사진작가展>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진은 이들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삶의 언어였습니다. 고궁, 한양도성, 한강 등 일상의 울타리를 벗어난 탐방은 작가들의 삶에 다채로운 경험과 깊은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소중한 성장의 여정에는 헌신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열린문화이음'의 나영균 선생님은 저희 뚜벅기 사진 동아리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길잡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전문적인 사진 강좌는 작가들이 '사진 예술'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 준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작가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는, 그들이 주체적인 작가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2025.12.10

동천하우스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 '나도사진작가전' 활동 개요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는 2015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사진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연간 활동을 전개하며, 그 결과물을 연말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활동 운영 방식

동아리는 매년 2월 활동 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3월 오리엔테이션과 신청서 작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후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정기적인 출사 활동을 진행하며, 동아리원들은 서울과 노원구 일대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주제에 맞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출사는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를 중심으로 계획되며, 각 회차마다 명확한 집결지와 이동 경로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서울의 물길을 렌즈속으로' 주제에서는 서울숲과 한강, 청계천, 여의도 한강 선착장, 반포 한강공원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물길 공간들을 탐방했습니다.

작품 완성 과정

8월에는 발달장애인 사진공모전 전시회 및 시상식에 참석하여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9월에는 한 해 동안 촬영한 작품들을 모아 품평회를 개최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4점 이하의 작품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전시회에 출품할 2점을 선정합니다. 동시에 전시회 제목을 함께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10월에는 선정된 작품들의 인화와 액자 제작, 전시 공간 구성 등 전시회 준비 작업이 진행되며, 12월에 노원구청이나 지역 내 전시 공간에서 동아리 사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의 의의

2026년 제12회를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의 장애인 환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수락산 무장애길, 당현천 생태계, 초안산 생태계 등 장애인 접근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단순히 사진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장애인의 시각으로 환경과 접근성 문제를 사회에 제시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이 활동을 통해 동천하우스 동아리원들은 사진 기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며, 연말 전시회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당당히 발표하는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동천하우스 뚜버기 사진동아리 25년도 활동 스토리텔링

25.03.03 OT



25.04.05 서울숲과 한강



25.05.05 청계천



25.06.06 한강유람선



25.07.06 한강반포공원



25.08.14 발달장애인 사진공모전



25.09.06 작가사진 품평회



두 개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제12회 나도 사진작가展

2026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아가다

제12회 나도 사진작가展은 9회, 10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개의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존중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방향 1 - 자율 활동형: 사진동아리 참여 트랙

동천하우스처럼 자체적으로 사진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과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원구의 장애인 환경'이라는 메인 주제와 환경 관련 2개의 세부 주제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4월부터 9월까지 수락산 무장애길, 당현천 생태계, 초안산 생태계, 과학기술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등 노원구 일대를 탐방하며 자유롭게 촬영합니다. 이 트랙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주체적 활동을 강조합니다.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노원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환경 캠페인과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 2 - 지원형: 사진 봉사단 지원 트랙

서울정민학교, 비전꿈터 등 사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문화이음 소속 전문 사진작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봉사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소중한 순간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전시로 완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카메라를 직접 다루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진의 피사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기록하고 전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향하여

제12회 나도 사진작가展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포용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자율성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문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 12월에 열릴 제12회 전시회는 두 트랙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렌즈에 담은 세상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락산 무장애길을 오르며 느낀 기쁨, 당현천을 거닐며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있게 미소 짓는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열린문화이음은 이 뜻에 함께할 기관과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발달장애인이 예술가로, 기록자로, 캠페이너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렌즈 뒤에서, 그리고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 문의 및 참가신청: 비영리단체 열린문화이음 | 노원구 덕릉로 725 (전화: 010-7477-3833)

후원계좌: 열린문화이음 기업은행 003-077679-04-010제12회 나도 사진작가전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동천하우스 '뜨버기 사진 동아리'



국혜영:
'봄비와 수선화' / '빗속의 경주'

김순미:
'빛 그림자' / '공원의 여름'

이소연:
'봄비 맞은 꽃' / '도시 풍경'

김경숙:
'노란 희망' / '예쁘게 비가 내려요'

박혜리:
'가다보면' / '서울 숲을 지키는 기사님'



송정미:
'한강 데이트' / '그리움'

신진:
'비행하기 좋은날' / '지하철에서 찰칵'

박인철:
'범의 이쿠르즈' / '물을 뚫고 달리는 제트스키'

김기성:
'자유를 향한 비상' / '유람선에서 본 한강다리'

장미숙:
'동생을 찾아라' / '모두를 잇다'



김찬미:
'청계천의 하루' / '한강 양상들'

송미현:
'시원한 청계천' / '예쁜 꽃'

최다은:
'벚꽃 이야기' / '한강 보고 하늘 보고'

김연지:
'괴물아 어딨니' / '봄맞이 서울숲'

임미란:
'63빌딩과 유람선' / '자유를 찾아서'

황영수:
'물가에 꽂힌 개나리' / '물가에 노는 희귀새'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진 전시회

열린문화이음 대표 나영균입니다.

서울정민학교가 '제11회 나도 사진작가展'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은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서울 정민학교의 오재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동의와 도움으로, 발달장애 및 중도증복 장애를 가진 68명의 학생들에게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영웅시대 병남 그레이 개인회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36명의 학생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일에 걸친 촬영 과정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생님들과 보호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각 개인의 표정과 행동을 세심하게 담아내었습니다. 개인당 100컷 이상 촬영 한 후, 부모님께서 가장 좋은 장면을 선택해 주셨고, 이를 수정 편집 과정을 거쳐 액자사진으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고, 그 용기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모든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감상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나눔과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정민학교

2025.12.10

서울정민학교 36명 프로필



권영찬



김가희



김규현



김민서



김민성



김민지



김소흔



김송비



김찬호



김하늘



김한나



박하임



배민채



서보은



선경수



심아라



유용준



이로아



이무열



이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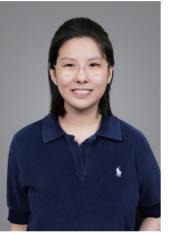
이지아



임예진



장세윤



장채원



장하루



정수진



최민경



최설



최아현



최진혁



최한나



최혜영



추다연



한유나



호예성



흥예빈

제 11회 나도 사진작가 展 폐막식 진행순서

일시: 2025년 12월 14일 (일) 14:00

장소: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식전 행사

- 난타 축하 공연

본 행사

- 개식사(사회자)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1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영상 시청 (제1회~제10회 활동 영상 / 약 5분)
- 인사말 (주최 측)
- 축사 (내빈)
- 시상식
- 참여 작가 소개
- 기념 사진 촬영 및 폐식

식후 행사

- 전시 관람 라운딩 (장소 이동: 2층 로비 전시실)



그동안 많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청 / 노원구의회 / 영웅시대 서울동북부 병남 그레이회원 /
인덕대학교(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 노원국악협회 /
디온(THEON) 네트웍스 / 토브그룹(주) / 한국사진뉴스 / 파란소프트



‘열린문화이음’ 회원 가입 및 문의

| 이메일 | sisa4779@nate.com | 문의 | 010-7477-3833 |
후원계좌 기업은행 003-077679-04-010